



Hello! My name is Sister Yiyeon Baek. I have been a member of the Korean province since 2009, and I made my first vows two years ago. As you know, I have been at St. Peter and Paul Convent in Tucson, Arizona for 4 months while I am going to CESL (Center fo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iving in this convent was very helpful for me to adjust here to American culture such as food, language, and people. Moreover, sharing daily life and history of our religious community with sisters who live with the spirit of Mother Seton and live in Mother Seton's country is a big blessing to me as a junior sister. Here we pray the Our Father in Spanish and the Glory Be in Korean. I really hope that more sisters in the Korean province will be able to hav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is blessing.

The special experience that I have been getting is meeting other cultures, especially Islam because most students in CESL came from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Through chances to discuss in class, I could break my misunderstandings about Islamic culture. Plus, thanks to Islamic students, I remember our Lord more in my daily life. Their prayer, Ramadan fast, and attitude about God are so admirable. My English may not have improved tremendously, yet I think that these kinds of experiences are valuable.



I am going to study Theology in Boston College beginning August 31<sup>st</sup>, 2015. Because our provincial, Sister Sae Hyang Oh, suggested Biblical Studies, I am about to make out my schedule for that. Whenever I imagine life in Boston College, I also recall Sister Laura. She has already given lots of help when I prepared an admission interview, so I am looking forward to a hope filled life with confidence.

Although I know that studying in a second language is not easy, I will be able to overcome my fears if I live with my God and much prayer of our Sisters.



안녕하세요? 백이연 수녀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지낸 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리조나 주 투싼에 위치하고 있는 St. Peter and Paul convent에서 지내며 University of Arizona 부설 어학 센터 (CESL)에 다니며 어학연수를 하는 중입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은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분원에는 미국 관구 수녀님들 세 분이 사시는데, 보통 2개 이상의 사도직에 투신하시느라 늘 바쁘시지만 철저하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과 매일 저녁기도 시간의 나눔을 하면서 기쁨과 신앙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송은 무조건 한국어로 한국어로 하는데 발음들이 정말 좋으시답니다!



CESL에서 겪는 문화 충격은 미국인들이 아닌 학급의 2/3을 차지하는 이슬람 문화의 중동 학생들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와 사뭇 다른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내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들과 점차 가깝게 지내면서, 저 자신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더 인식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 대화 중에 언성을 높이다가도 "아, 내가 하느님을 잊고 있었네!"라며 자신을 가라앉히는 모습 등은 같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재촉받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차별적 문화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종종 토론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 자신이 진정한 이슬람교도라면 인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부분임을 인식하는 모습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곳에 다니며 영어 실력이 크게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은 넓어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31일부터 메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위치한 Boston College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진짜' 미국 생활이 시작될 것 같지만, 저를 이 시간까지 돌보고 이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기 보다는 새로움과 알아감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